



전국순회 하계 양계강습회

— 자조금제도 도입 · 계열화문제 다뤄, USFGC 후원으로 —



(이상윤 회장)



(오봉국 박사)



(박영인 박사)



(조병률 박사)



(Allan Wolfe 박사)

본회는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계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85하계 양계강습회를 서울·대전·전주·광주·대구·부산 등 6대도시에서 개최했다.

전국의 양축가, 업계관련자, 관계공무원 등을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된 이번세미나는 양계산업의 발전방향 양계질병 예방관리대책외에도 최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생산자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시되었으며 USFGC가 후원하고 한국바이엘화학·서울사료·서울미원·홍성사료·고창양계·신기농장·천호부화장·한협축산·한일농원·홍성농원에서 협찬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마렉씨병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병률(미 워싱턴주립대 교수, 현 서울대출강) 박사가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첫 강습회는 7월 30일 미문화원 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는데, 본회 이상윤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가 해마다 실시해온 양계강습회가 그동안 양계 산업 발전에 적지않은 공헌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하고, '올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미국 사료곡물협회 박영인지부장과 협찬업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기꺼이 강의를 맡아 주신 조병률 박사를 비롯한 강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양계전문가 Allan Wolfe씨는 「미국 양계산업의 계열화」에 대한 발표에서 「미국에서 브로일러산업이 정착된 것은 50년대 후반 이후이며, 40년대까지는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심한 경쟁을 벌이는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웠던 시기였으며, 지금은 소비확대에 따른 공급채널이 완전히 세워져 있고 규격화·단일화·체계화·기계화의 실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고 전했다. 통역은 박영인 회장이 맡았다.



△ 서울 미문화원 회의실 세미나 광경

이어 오봉국(서울대)교수는 「한국 양계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30년간 계란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나, 계란소비량은 10년전부터 자연증가율인 인구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문제도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가 계란을 기피하는 현상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봉국교수는 또 닭고기가 일반적으로 기름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름부위를 제거하면 축산물중 기름기가 가장 적으며, 쇠고기 등과는 달리 근육내, 특히 가슴부위에는 기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교수는 이밖에도 제한급이시 사료량을 줄일 때 필수영양소가 부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양계산물 유통안정을 위해 연구되고 있는 계란 및 유통규격기준은 연구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사료곡물협회 박영인회장은 「양계산업의 자조금제도」에 대해 '산업이 발전하려면 주인의식이 확고해야 하는데, 흔히 <모든 사람의 일은 아무 의일도 아닌> 것이 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조직의 힘을 이용한 강한 조직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박영인회장은 생산자가 자구적 소요자금을 확보하려면, △생산자 모두가 참여하고 △부담액이 아주 적으며 △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제도적 도구가 바로 「생산

자의 자조금」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한국에서의 자조금제도의 도입은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며, 생산자 외에도 연관산업, 학계, 정부, 의회가 얼마만큼 협조하는가에 따라 도입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계속해서 방한중인 조병률 박사의 「마렉 백신과 예방」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조박사는 HVT백신, 비병원성 마렉씨병 바이러스 백신, 감독(減毒) 마렉씨병 바이러스 백신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아직까지 100%로 효과를 나타내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신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수송·보관·회석상의 잘못, 백신자체의 불량, MD 조기감염 등을 들고, HVT에 SB-1을 혼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있으나 SB-1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MD 사독백신은 독일에서 시작, 미국 미시간대에서 연구중이나 아직 별 진전이 없으며, 닭의 각 품종간 질병에 대한 감수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MD와 IBD와의 관계는 현재 두가지 주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정확히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병률박사는 백혈병 감염과 IBD 문제도 설명하고 마렉씨병 예방접종은 육계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7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지난 7월 30일(화)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업체 현황에서 닭고기는 kg당 하이는 900~950원, 세미는 950~1,050원으로서 중복으로 인해 약간 상승하였고, 초생추가가격은 추석경기로 인하여 280~330원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추현황은 거의 물량채화없이 입추가 약간 부진하나, 추석경기로 인하여 곧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추석경기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

대는 상승하고 육계출하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예상되므로 입추에 더욱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본과회의가 끝난후 회의 참석자들은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하계양계강습회에 참관하여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8월분과회의는 8월 27일에 개최하니 육계생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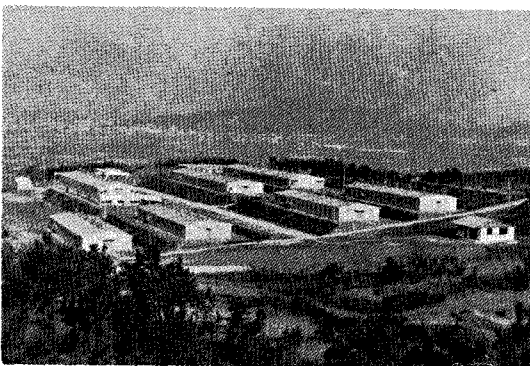
종계 및 부화분과 소위원회 개최

지난 7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부화 및 종계분과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각 지역 및 농장별 현황 및 전망검토가 있은후 노계판매 대책협의에서 특히 G. P. S 농장 및 대규모농장이 상호협조하여 출하시기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상인들의 농간을 막아 노계가격의 적정가를 받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부화분과소위원회는 매월 2번째 수요일에 개최되니 종계 및 부화업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19회 산란계, 15회 육용계, 닭경제능력검정 실시



△ 본회 안성 닭경제능력검정소 전경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소는 85년도 제 2 차 19회 산란계(입란 8. 28예정), 15회 육용계(입란 10. 11 예정)검정을 각각 실시할 예정인바 종계 보유업체

는 전품종을 출품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산란계 검정은 500일간, 육용계 검정은 8주간(56일)씩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출품 신청기간은 산란계는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육용계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

닭경제능력검정은 본회 검정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자세한 것은 본회 지도조사부(전화 752 - 3571 ~2)로 문의하면 된다.

MBC-TV에 삼계탕 방영

MBC-TV는 8월 2일 오전 9시 50분 생활뉴스시간에 삼계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우리나라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삼계용닭의 무게, 소비자가격등을 소개하였으며, 가나안농장의 사육광경, 대한브로일러의 도계과정을 필름에 담았다.

이번 취재를 위해 본지 민병호 기자가 안내를 맡았다.

본회 내방



(Goldfrey Martin)

지난 7월 15일(월) 오전 육계경제능력검정 출품에 대한 검정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오스트레일리아 Tegel 사 영업담당 Goldfrey Martin 씨가 본회를 경유하여 안성 닭경제능력검정소를 방문.